

# 중국산 저가 타이어 수입 급증

## 2006년 상반기 375만개로 43% 증가 ... 안전 검증절차 필요

가격이 싼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타이어 수입량의 40%를 넘어섰다.

그러나 저가의 중국산 타이어들은 품질이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어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.

9월13일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, 2006년 상반기 타이어 수입량은 총 374만7000개로 전년동기대비 43% 증가했다.

연도별 타이어 수입량은 2001년 350만9000개에서 2002년 436만4000개, 2003년 471만8000개, 2004년 543만9000개, 2005년 628만3000개 등으로 늘어나면서 연평균 15.7%의 증가율을 기록했다.

품목별로는 전체의 81.5%를 차지한 승용차용의 경우 2005년 상반기 203만8000개에서 2006년 상반기 305만3000개로 무려 49.8% 늘었고 트럭·버스용 타이어는 0.8% 감소했으며 산업·농경용은 48.4% 증가했다.

승용차용 타이어는 2001년 214만1000개에서 2005년 497만8000개로 연평균 23.5% 증가했다.

특히, 중국산 타이어는 2003년 16만1000개로 4.9%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28만8000개(7.1%)로 늘었고 2005년에는 160만4000개로 32.2%를 차지했다.

2006년 상반기에는 전체 수입량 305만3000개 가운데 128만8000개가 중국산으로 집계돼 42.2%를 차지하면서 40%선을 돌파했다.

승용차용 타이어의 수입단가는 2004년 43.28달러에서 2005년 37.46달러, 2006년 상반기 36.19달러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.

중국산 타이어의 평균 수입단가는 2004년 22.98달러에서 2005년 16.94달러, 2006년 상반기 17.39달러 등 20달러 선에도 미치지 못했다.

싼 가격을 무기로 매년 타이어 수입량은 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.

국내 타이어 생산기업들은 한국표준협회와 화학시험연구원의 KS인증을 받고 매년 품질과 성능에 관한 제품 심사를 받고 있으나, 외국산 타이어는 별도의 인증이나 검사 없이 수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안전성이나 내구성 등에 대한 검증장치 없이 마구잡이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.

대한타이어공업협회 송영기 이사는 “수입단계에서의 안전검증 절차 또는 유통된 타이어의 표본검사 등 타이어를 시험 검사할 수 있는 정부 공인인증 시험검사소가 설립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지훈 기자)  
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9/13>